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2022.2.24.(목) 15:00
영상회의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모두발언

2022. 2. 24.

금 융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감원, 협회 그리고 위원님들 모두
IFRS17 도입준비에 힘쓰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제도가 '23년,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보험사들은 비교공시를 위해
금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IFRS17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건전성 감독기준인 K-ICS도 마련하고
총 4회의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세심하게 다듬었습니다.

보험업제도 당국과 호흡을 맞추며, 선제적인 자본확충,
새로운 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①K-ICS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
②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 (8차 회의) ①감독회계 ②보험상품 (금번 회의) ③건전성 ④계리제도 개정사항 순차 논의

오늘 회의내용은
보험회사가 實戰이 된 IFRS17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향후 10년~20년 경영전략을 짜는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실적에 가려져 있으나,
고령화와 저성장, 디지털 전환과 경쟁 격화로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창출이 어려워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난다는
낡은 단기 패러다임에서 비롯된 현실 인식과 전망입니다.

IFRS17은 단순히 회계제도의 도입을 넘어,
우리 보험산업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IFRS17하에서는 ¹⁾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직시해야 하고,
²⁾발생주의 관점에서 단기視界에서 벗어나
넓게 멀리 내다보는 장기경영을 해야 합니다.

* IFRS17의 핵심특징: ①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 ② 수익을 현금주의 → 발생주의로 인식

상품개발과 판매, 자산운용, 보험금 지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보험사 성과와 보험소비자 편익이
일치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이 극대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려움을 겪는 보험회사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도
위원님의 고견과 건설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